

## 14면에서 받음

**그** 렇게 변화를 겪어갔습니다. 다시 우가 찾아들 무렵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어딘가 가지는 듯 잡아끌었습니다. 더 이상 수레를 탈 필요는 없었어요. 나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었고,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뛸 수도 있었으니까요. 키가 자랐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좀 커져도 여전히 난 원숭이였으니까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왕궁터 옆 사원이었습니다. 머리 꼬다리에 있던 해가 한 뺨을 기울여졌을 때 마을 장고에서 보았던 백발노인과 등굽은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뒤로는 청년들이 연꽃색 비단으로 굽게 산 불상을 수레로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날은 사원에 불상을 새로 안치하고 점안의식을 거행하는 날이었답니다.

스님 두 분이 불상 내부에 사리와 불상 조성기, 발원문 경전 등을 봉안했습니다. 반침대 역할을 하는 연좌대에 불상을 안치한 뒤 점呸 순간이 도래하자 불상은 생명을 얻어 자비의 숨결을 내쉬었습니다.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할아버지와 불모(佛母) 백발노인은 불상 앞에 여러 번 절했습니다. 등굽은 소녀도 뒤에서 구경하고 있더군요. 나는 까치발을 든 소녀 뒤로 다가갔습니다. 소녀보다 작은 나는 몸을 구부리고 사람들 다리 사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배배자가 굴복하듯 한 쪽 무릎을 땅에 찍고 손으로 바닥을 짚은 뒤 나머지 무릎을 전천히 구부렸습니다. 울리를 때도 바닥에 먼저 손을 짚고 엉덩이를 빼 올리며 무릎을 꾸었습니다. 이를 악운 차 얼굴이 일그려졌다가 이내 눈을 꼭 감고 중얼거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진에서 본 아이의 명복을 빌었을까요?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뛰어나가 그만 하라고 막아서고 싶었습니다. 진인한 고통이 내 두 다리에 전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누** 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모습을 조각하겠다고 결심한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절하는 조각을 부처님 앞에 놓아드려야겠다고요. 할아버지에게 헤드릴 건 그것뿐이에요. 그 때 소녀가 돌아서면서 웅크리고 있던 나의 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은 소녀와 나의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소녀는 당황하여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러자 오른쪽 눈 밑에 암증맞은 보조개가 폐지 않겠어요? 키요미의 눈 밑 상처처럼요. 더 자세히 보려 했지만 소녀는 얼굴이 빨개져 쏘살같이 불당 뒷쪽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의 원숭이인 걸 알 텐데, 꼭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건강한 나무를 찾아 헤맸습니다. 신실함과 고통을 동시에 표현해 낼 최상의 나무를 찾아야했습니다. 숲에는 흙단나무, 향나무 등 건강한 나무가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헤매다 양자비를 곳에서 해의 기운을 받고 서 있는 늄름한 느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저거다, 싶었어요. 양(陽)에 서 자란 나무는 조각도 미끄러지도록 길을 내주지만, 음(陰)에서 자란 나무는 칼을 물고 놔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느티나무가 가진 자연스러운 나뭇결이 조각상 전체에 어울리며 펼쳐 보일 테지요. 나는 큰 도끼 두 자루를 들고 다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에도 멀지 않아 걸렸습니다. 실물 크기로 나무를 다듬기까지 또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적당한 토굴을 찾아 나무를 옮겨 놓고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조각도구들도 가져다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물래 작업을 해내고 싶었으니까요.

해 뜨면 숲으로 향하고 해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드린 후 곡자귀와 원도(圓刀), 망치를 이용해 면을 쪼아냈습니다. 겉모자기는 고된 작업이지만 작업 할수록 힘이 솟았습니다. 분명 외형과 내면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다리가 점점 곧아지고 곡자귀를 친 손가락에 턴한 안정감이 들었지요. 나는 그저 힘든 작업을 하니 강해지는구나. 서서 작업을 하니 다리가 펴지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마** 일사라는 나를 보며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었나봅니다. 어느 날 아침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무어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라. 어디…… 사년…… 죄구나……."

어디를 가나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화가 익는 계절이 네 번 째였다는 이야기 같기도 했고 내가 캐웠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끄억꺽 끼끼"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 대답이 최선이었지요.

검복작업을 끝내고 끝질을 시작했습니다. 평도

(平刀)를 이용하여 등 같은 넓고 평평한 부분을 다듬었습니다. 지루한 여정이었어요. 대장간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조각은 내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수양의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질이 지나고 속을 파내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나무는 배어내도 숨을 쉽니다. 마르고 습기 머금는 과정을 반복하지요. 마를 때 금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류 센티 두께만 남기고 안을 파내었습니다. 마지막 세목 작업이 남았습니다. 전질질을 하기 위해 청칼을 들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 작업이었지요. 영호니 실리자 같은 스스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 가득 파묻은 할아버지 얼굴에서 눈물 방울이 흘렀습니다. 동네에서 서로 부는 부리에게 미세하게 펄럭이는 웃자락이 움직거렸습니다. 다리 곳곳에 거미줄처럼 얹혀있는 고난의 새월이 이어졌습니다. 벌떡꼼지 갈라진 협곡을 내 눈물로 채웠습니다. 우아한 느티나무 나뭇결이 더해져 정맥은 파르르니 부풀어 오르고 웃자락은 하늘로 흘날렸습니다. 대지의 자식으로 태어나 땅을 디뎠던 거친 땅은 이미 대지와 하나가 되어 자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평길을 들었습니다. 기념품 조각가들처럼 사포로 대충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립이라도 거칠다느껴지면 정성스레 평길로 밀었습니다. 내 손가락에 응어가 박히는 만큼 할아버지 몸은 점점 매끈해져

록한 과일씨앗 같은 것도 뛰어나와 있더군요. 그 때 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에 비친 얼굴에 벗방울이 뛰며 순식간에 형상이 흔들렸습니다. 일어서 내 몸을 훑어보았습니다. 사람 같다고 하기엔 등이 굽었고 원숭이 같다고 하기에는 다리가 곧았습니다. 두 다리 사이에 텔렁거리는 살덩이도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꼬리만은 여전히 내 마음가는대로 움직여주더군요. 이것이 죽음의 징조일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낯선 모습이 절망스러워지면 어찌되었든 대체로 사람들은 눈에 띄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그 밤 나는 물에 대장간으로 숨어들어 할아버지의 웃을 가져다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레를 끌고와 조각상을 실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할아버지를 부처님 앞에 모셔다 드려야 했어요. 할아버지가 편안히 매일 기도드릴 수 있다면 이까짓 몸 어찌되던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부처님 앞에 할아버지를 조각상을 바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내게 아시라는 축복의 이름을 주었듯 부처님도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내려달라고요.

**사** 원에서 물러나 그 새벽 다시 토굴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변해버린 모습 때문에 나는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슬퍼할 것을 생각하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헤아리지도 못할 시간들을 자고 깨기를 반복하며 토굴에 누

아리와 갈라진 발꿈치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부처님의 축복이 그들의 손을 통해 할아버지에게 모두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자석에 이끌려 세상과 내가 순식간에 붙어버린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밀어내기만 하면 모든 생명들이 한 순간에 나를 끼안아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것. 수용되는 것. 그리고 연결된다는 것 그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그 때 알았어요. 나는 살고 싶구나. 마음을 표현하고 같은 감정을 나누며 살고 싶구나. 진정 원했던 것은 그런 이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구나. 지구의 자전축이 바뀐 듯한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뒤** 돌아 조용히 사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물가에 처음 얼굴을 비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낯설고 두려움. 그러나 비로소 존재가 명징하게 형상화되던 느낌. 어쩌면 사람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거라고. 나를 비춰주었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승님, 누가 그 조각상을 만든 걸까요? 이번 달 지역신문에도 기사가 실린다는군요." "그럴만하지. 사실 나도 몹시 충격 받았으니까.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작품일걸세."

소녀는 조각 장인과 일행들에게 차를 내주고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역시 말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그머니 내가 숨어있는 방을 쳐다보았습니다. 밤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벗어나면 원숭이 인간은 오직 나뿐인 것인가 되니까요. 공포가 밀려들었습니다. 원숭이도 사람도 아닌 제 3의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답답해하며 창문을 넘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토굴로 돌아온 길에 꼬리만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 생각 들더군요. 기다리면 꼬리도 사라지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걸까? 한동안 꼬리가 사라지길 바라며 지켜보았지만 꼬리는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섭리의 속내는 알 수가 없더군요. 현상이 벌어지면 그저 치열하게 사유하고 무작정 살아내는 것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결** 국 알 수 없는 진실 앞에는 진실을 대하는 자세만이 남는 거라 생각 들더군요. 믿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조각하면 소녀는 나의 원숭이 친구 그녀라고 세상에는 그녀와 나 외에도 수많은 꼬리 달린 인간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그저 그녀가 보여준 호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실보다는 진실에 대한 믿음이 때로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나 하나 살기 위한 자기기만이든 상관 없습니다. 역사는 돌연변이들의 기록이고 그 한편에 원숭이도, 인간도, 원숭이 인간도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니까요. 소녀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키요마. 좋은 어머니 키요마. 내 친구 키요마. 그녀가 언젠가 원숭이 인간의 궂마더가 되어주길 바라면서요.

그날 밤 나는 꿈 한 번 꾸지 않고 단잠을 잤습니다. 모든 원숭이 인간을 위해 빛을 쏘아 올리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다음 날 곱게 단장하고, 꼬리를 빠트리 세운 채 사원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를 조각상 옆에서 축복하는 부처님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그 때까지 쏟아졌던 찬사는 원숭이의 장난질로 펼쳐졌습니다. 사원을 찾던 신도들이 밤길을 뚫고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황스럽더군요. 따뜻이 비춰주던 거울이 이렇게 덧없이 사라지더니요. 모래성이 한순간 무너지듯 접으로 허망했습니다.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지요. 조각은 나의 모든 것이 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등도 곧게 펴지더군요. 내 작품에 스스로 만족할수록 성대와 구강구조가 정교해졌어요. 그러자 곧 말이 터지더군요. 글도 배웠고요. 돌연변이에 대한 책을 계속해서 찾아 읽었습니다. 내면에서 기인하는 흔들림 없는 자아상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정부 기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다음은 당신이 신문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이** 것이 내가 접은 진화의 역사입니다. 내식으로 말하자면 횡단의 역사지요. 꼬리를 밝힌 것에 후회는 없어요.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해받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당신과 나라는 별 사이에는 1.4%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거리가 존재하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정 당신들이 진화를 바란다면 더 이상 다원의 진화만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겁니다. 서로를 가능성의 열린 존재로 바라보며 횡단과 진화가 동등하게 교차할 때 말 그대로 세계는 진화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는 나와 같은 원숭이 인간이 더 변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이야기를 건넨 이유입니다.

〈당선소감·심사평 17면에〉



화가 김영화 삽화

갓

갓내리는 강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운이 쇠해 몇 번을 휘청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어 바위 옆에 잠시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달을 바라보았어요. 빙긋 웃음이 났습니다. 살구 빛 달이 눈에 꽉 들어차더군요. 나는 펄발에 벌리령 누워 한침을 웃었습니다. 끼끼 소리가 아닌 하하하 소리로 들리더군요. 이내 웃음 소리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저 하늘 별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침을 그 렇게 누워 있다가 강기슭으로 기어갔어요. 잔잔한 물가에 얼굴을 기豕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내 모습을 찬찬히 바라본다는 것 원숭이. 그 모습 외에는 다른 상상은 할 수 없었지요. 잠들거나 없는 수면위로 수학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깜빡 놀라 물을 뒤로 잡아 뺏습니다.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그 낯설은 한침을 엎드려 있다가 다시 용기를 내었습니다.

**달** 조각상이 완성되던 즈음 내 물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텔은 빠지고 건강하던 몸은 꼬챙이처럼 아파었습니다. 온종일 쪼그리고 앓아하는 전질질은 그렇게 버거운 일이었지요. 조각상이 완성된 뒤로도 여러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지도 앓았습니다.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다 생각들던 밤, 드디어 페가 움을 직감했습니다. 부처님을 빼려가기 전 텔을 썻어야 했습니다.

빛내리는 강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운이

쇠해 몇 번을 휘청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힘이 없어 바위 옆에 잠시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 해 할아버지를 조각하는 시간들, 문득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해버린 내 모습을 할아버지께 보여드릴 수는 없었어요. 알아보지 못할 수도 또는 알아본다 해도 너무 늘어 쓰러질지 모르니까요. 대신 조각상에 마지막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가에서 얼굴과 몸을 정갈하게 씻고 햇살 속에 길을 나섰습니다. 나를 키워준 태양에게, 꿈꾸게 해준 하늘에게, 태고적 냄새를 살이다 준 바람에게,

나는 펄발에 벌리령 누워 한침을 웃었습니다.

끼끼 소리가 아닌 하하하 소리로 들리더군요.

이내 웃음 소리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조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조각상이 완성되었습니다.